

Issue Comment

- ✓ 3Q19 스마트폰 출하량 2년 만에 +성장 전환
- ✓ 삼성전자의 시장 지위 강화
- ✓ Huawei YoY +29%로 의외의 선전

3Q19 스마트폰, 예상외의 Huawei 약진

- 3Q19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3.7 억대로 2년 만에 분기별 YoY +성장. 가격 경쟁, 5G 스마트폰 출시 등이 주요인으로 파악
- 지역별로도 고른 성장세를 기록. 북미 지역을 제외하고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동유럽 지역에서 YoY +15%로 수요 증가 폭이 가장 컸음. 북미 지역 역시 감소 폭을 줄여나감
- 삼성전자는 7,800 만대를 출하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점유율 1%p 상승. Huawei 제재에 따른 반사 수혜와 더불어 Note 10 판매 호조, 5G 출시 등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. 2020년 시장 지위는 더욱 견고해질 전망
- Huawei는 6,700 만대를 출하하며 YoY +29% 증가하며 의외의 선전. 미 제재에도 불구하고 해외 판매 감소분을 중국 내수에서 메운 영향. 해외에서 Legacy model의 판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파악. 중국 내 Huawei 점유율은 50%에 가깝고 Huawei의 중국 시장 의존도는 70%에 육박. 미 제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0년 출하량 감소는 불가피
- Apple은 4,600 만대로 YoY -3% 기록하며 감소 폭을 줄임. 2020년 5G, 폼팩터 변화로 연간 출하량의 반전을 예상
- Xiaomi, Oppo, Vivo는 중국 시장 내 Huawei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에 밀려 역성장 기록

3Q19 Vendor 별 출하량

(백만대)	3Q19	YoY	QoQ
Samsung	78	8%	2%
Huawei	67	29%	14%
Apple	46	-3%	20%
Xiaomi	32	-2%	1%
OPPO	29	-6%	-1%
Vivo	28	-1%	7%
Global	366	2%	7%

자료 : SA SK증권

3Q19 지역별 출하량

(백만대)	3Q19	YoY	QoQ
North America	37	-1%	21%
Western Europe	33	2%	15%
Asia Pacific	200	0%	5%
Central & Latin America	36	7%	1%
Central & Eastern Europe	26	15%	18%
Middle East & Africa	35	1%	0%
Global	366	2%	7%

자료 : SA, SK증권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